[일본, 2013년 11월] [농식품]

1. 일본지역, 현장 이슈

▶ 쌀 생산조정 폐지

농림수산성은 5년 후에 쌀의 생산조정을 폐지할 방침으로 생산조정 협력 농가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

생산조정 직접 보조금은 금년도 총액이 약1700억엔이며, 생산조정 보조금을 중심으로 농가의 소득보장 관련 정책에 연간 약7000억엔을 투입해 음. 일본은 농산물의 비싼 관세를 유지하면서 많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어, TPP교섭 체결을 내다볼 때 생산조정 폐지와 경쟁력 강화 연결이 과제로 대두

▶ 편의점 커피 판매 7억 잔 돌파

세븐일레븐, 훼밀리마트, 로손 등 편의점에서의 '13년도 커피 총판매량이 7억 잔을 넘을 전망. 1잔 100엔대라는 적당한 가격이 인기로 커피를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가 급증함. '13년 일본국내 커피 소비량도 과거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세븐일레븐은 5월에 연간판매 목표를 4억5천 잔으로 당초 계획의 36%증가로 상향 수정하여 연간 3억 잔을 판매하는 맥도날드를 웃도는 일본 1위의 커피 판매점으로 대두

▶ 특정보건용 음료시장 확대

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에 따르면 '11년 특정보건식품시장은 5,175억엔으로 그 중 음료는 약200억엔을 차지. '12년 기린의 특정보건용 콜라 판매를 계기로 판매 경로가 늘어나면서 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14년 특정보건용 음료시장은 '11년 대비 2.1배인 4,379만 박스로 전망

기존상품과 차별된 지방흡수 억제 기능을 가미한 커피, 녹차, 콜라 등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당초 생산 계획을 웃도는 판매를 기록. 각 기업은 특정보건용 음료 상품의 비율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

▶ 한국산 식품위반 사례

한국산 고춧가루(수출업체: BALAN TRADING COMPANY)에서 잔류농약(디페놀코나졸 기준치 0.01, 검출치 0.20/0.05) 위반사례가 2회 연속 발생하여 신선홍고추도 전수검사 이행

2. 농식품 수입동향 및 전망

▢ **'13. 9월말까지의 일본 전체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6,623,685백만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 수입 1위국은 미국(6.0%), 2위 중국(11.7%), 3위 캐나다(16.6%) 순임**

< 일본 농림수산물 수입액 >

(단위:백만엔,%)

품목	'12년	'12년 1~9월	'13년 1~9월	증감율(%)
전세계	7,917,805	5,881,245	6,623,685	12.6
한국	187,489	133,667	139,791	4.6

자료원 :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

* 단, 한국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HS코드 1류~24류 합계 기준으로 산출

▢ 야채

- 9월의 야채 수입동향은 양파 수입량의 대폭 증가로 신선야채 수입량이 13개월 만에 증가, 수입량 전체로는 10개월 만에 전년을 웃돌았음

- 수입량은 전년동월대비 104%인 200,367톤으로, 유형별로 보면「신선 야채」는 113%인 62,406톤, 「냉동 야채」는 105%인 75,513톤, 「염장 등 야채」는 82%인 5,998톤, 「건조 야채」는 95%인 2,623톤, 「식초 조제야채」는 106%인 3,232톤, 「토마토 가공품」은 90%인 14,507톤, 「기타조제야채」는 97%인 34,212톤, 「기타」는 135%인 1,876톤으로 나타남

- 한국산 야채 수입량은 전년동월비 96.7%인 2,670톤으로 유형별로 보면「신선 야채」는 112.8%인 1,114톤, 「냉동 야채」는 45.5%인 5톤,「건조야채」는 14.3%인 1톤, 「토마토 가공품」은 혼합야채주스가 58.1%인 50톤, 잼이나 조제딸기 등 「기타 조제야채」는 89.8%인 1,500톤으로 나타남

▢ 신선야채

- 9월의 신선야채 수입량 62,406톤 중 수입량이 증가한 주요 품목은 결구양배추가 전년동월비 204%인 1,099톤, 토마토가 170%인 795톤, 아스파라가스가 147%인 887톤, 양파가 123%인 8,771톤, 마늘이 104%인 1,501톤으로 나타남. 결구양배추는 주산지인 군마산이 일조량 부족으로 크기가 작고 출하량이 적었으며, 작년 국내산이 풍부했던 영향으로 수입량이 적었던 반동으로 전년을 웃도는 결과가 나타남

- 한편, 수입량이 감소한 주요 품목으로, 멜론이 전년동월비 69%인 2,143톤, 파프리카가 95%인 2,703톤, 블록콜리가 95%인 3,702톤 등임

▢ 가공식품

- 9월 가공식품 수입금액은 1,432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7.8% 증가, 주류를 제외하면 1,223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7.1% 증가함. 분류별로 보면, 축산가공품, 수산가공품, 농산가공품, 과자, 조미료, 기타 조제식료품, 주류가 큰 폭으로 증가함

< 품목 수입통계(누계기준) >

(단위:백만엔,%)

품목	2012년 한국수입	2012년 1~9월	2013년 1~9월	전년대비 (%)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농식품전체	191,159	5,881,245	6,623,685	12.6	미국	1,227,050	중국	885,507	캐나다	440,575
멜론(신선)	240	2,299	2,699	17.4	멕시코	2,015	미국	488	한국	184
밤	2,696	728	603	△17.2	중국	423	한국	168	이탈리아	12
딸기(신선)	240	1,692	2,139	26.4	미국	2,080	한국	59	-	-
토마토	738	1,308	2,183	66.9	미국	1,114	한국	699	캐나다	137
결구양배추	187	1,172	803	△31.5	중국	729	한국	39	대만	34
오이	1.5	21	0.3	△98.5	한국	0.3	-	-	-	-
가지	21	10	14	39.4	한국	14	-	-	-	-
기타버섯	106	165	183	11.3	한국	85	이탈리아	39	프랑스	20
고추· 피망속	7,586	9,611	11,142	15.9	한국	6,670	네덜란드	2,778	뉴질랜드	1,669

품목	2012년 한국수입	2012년 1~9월	2013년 1~9월	전년대비 (%)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파프리카	7,235	9,344	10,964	17.3	한국	6,494	네덜란드	2,775	뉴질랜드	1,669
계육조제품	885	127,475	149,472	17.3	태국	77,485	중국	70,888	브라질	473
츄잉껌	54	87	76	△12.2	한국	43	중국	12	캐나다	11
코코아조제품	328	1,737	1,601	△7.8	싱가폴	1,003	한국	267	태국	190
인스턴트커피	1,000	6,544	8,354	27.7	브라질	2,448	한국	1,320	콜롬비아	1,137
알콜음료	27,058	150,003	173,480	15.7	프랑스	60,522	한국	20,460	미국	16,424
곤약	105	1,970	1,818	△7.7	중국	1,632	인도네시아	111	한국	74
원료인삼	169	4,100	3,291	△19.7	중국	3,161	한국	73	대만	52

자료원 :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

3. 타국산 경합품목 동향

▢ 파프리카

- 1~9월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7.3% 증가한 10,964백만엔. 한국산은 전년대비 16.9% 증가한 6,494백만엔, 2위의 네덜란드산은 9.3% 증가한 2,775백만엔, 3위의 뉴질랜드산은 33.8% 증가한 1,669백만엔임

▢ 기타 버섯

- 1~9월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183백만엔. 한국산은 전년대비 23.2% 증가한 85백만엔으로 나타남. 2위의 이탈리아산은 21.9% 증가한 39백만엔, 3위인 프랑스는 20백만엔임

▢ 멜론

- 1~9월의 수입액은 17.4% 증가한 2,699백만엔. 수입 1위인 멕시코산이 22.8% 증가하여 2,015백만엔, 2위의 미국산은 6.3% 증가한 488백만엔, 한국은 3위로 2.6% 감소한 184백만엔으로 나타남

▢ 토마토

- 1~9월의 수입액은 66.9% 증가한 2,183백만엔. 미국산이 68.5% 대폭 증가하여 1,114백만엔, 한국산이 2위로 44.1% 증가한 699백만엔, 3위가 캐나다로 137백만엔으로 나타남. 업무용 수요를 중심으로 수입은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알콜음료

- 1~9월의 수입액은 15.7% 증가한 173,480백만엔. 1위인 프랑스산이 12.8% 증가한 60,522백만엔, 2위인 한국이 1.1% 증가한 20,460백만엔, 3위인 미국이 작년 3위국인 이탈리아를 웃돌아 16,424백만엔임

▢ 코코아조제품

- 1~9월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7.8% 감소한 1,601만엔. 수입 1위인 싱가폴이 18.0% 감소한 1,003백만엔, 2위인 한국이 14.1% 증가한 267백만엔, 3위인 태국이 61.0% 증가한 190백만엔으로 나타남

4. 동향 분석 [즉석면]

□ 시장규모

○ '13년 즉석면류 생산량은 51.50억개(전년대비 1.7% 증가)로 과거최고를 갱신할 전망. 컵면은 32.50억개로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봉지면이 19.00억개로 8.9% 증가할 예상으로 지금까지 과거 최고 기록인 '04년 51.25억개를 웃돌 것으로 내다봄

○ '생면타입'의 봉지면이 히트하면서 총수요가 증가. 컵면은 봄여름은 축소 추세를 보였으나 8~9월은 상승 추이를 나타내고 있어 꾸준히 일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 즉석면류 생산량 >

종류	2012년			2013년(추정)			전년대비(%)	
	개수 (백만개)	물량 (천톤)	금액 (백만엔)	개수 (백만개)	물량 (천톤)	금액 (백만엔)	개수	금액
봉지면	1,745	153.6	118,500	1,900	167.2	129,000	108.9	108.9
컵면	3,320	252.0	363,000	3,250	246.5	359,000	97.9	98.9
계	5,065	405.6	481,500	5,150	413.7	488,000	101.7	101.3

자료원 : 주류식품통계월보 (일간경제통신사 조사)

* 년차는 1~12월 기준. 생면 및 컵스프는 제외. 메이커 표준가격. 생산량은 면의 중량 기준

□ 유통동향

○ 「마루짱 세이멘」(11년11월 발매)의 기록적인 히트로 봉지면의 개발경쟁이 정점에 달아, 최근 2년 타 식품 카테고리에서 수요를 빼앗아 올 정도로 인기를 모음

○ 현재 즉석면 시장은 논후라이의 '생면타입'이 중심으로 현재 18억개에서 19억개, 20억개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논후라이면의 구성비는 40~50%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이 신기술을 도입한 '생면타입'이 차지하고 있음

○ 각사가 공표한 판매목표는 「마루짱세이멘」「라오」가 연간 3억개, 「이따다끼」가 연간 2억개로 기존 논후라이면의 추정치를 합산하면 전체 합계와 거의 동일

< 일본 즉석면류 주요 메이커 출하액 >

(단위 : 백만엔)

기업명	2012년			2013년(추정)			전년대비 (%)
	봉지면	컵면	계	봉지면	컵면	계	
닛신식품	28,800	164,500	193,300	35,500	166,000	201,500	104.2
토요수산	31,000	86,000	117,000	38,000	86,000	124,000	106.0
산요식품	36,000	26,000	620,00	37,000	26,000	63,000	101.6
에스콕	2,550	42,550	45,100	2100	42,600	44,700	99.1
묘조식품	8,800	31,200	40,000	8,900	30,500	39,400	98.5
기타	20,380	44,720	65,100	19,460	45,740	65,200	100.2
계	127530	394970	522500	140960	396840	537800	102.9

자료원 : 주류식품통계월보 (일간경제통신사 조사)

* 각사 결산연도 기준. 생면 및 일부 컵스프(만두, 당면 등) 포함

< 일본 즉석 봉지면 히트상품 >

신상품 (소매가격 525엔)			
	닛신식품「라오」 - 용량 : 84g(면70g)×5개	토요수산「마르짱세이멘」 - 용량 : 104g(면80g)×5개	산요식품「이따다끼」 - 용량 : 107g(면80g)×5개

□ 한국산 수입동향

○ '13년 1~10월 한국산 라면의 일본수출 실적은 6,172톤 26,938천불로 전년동기대비 물량은 17.3% 감소, 금액은 27.2% 감소함. '12년 동기 실적이 9,610톤 44,731천불로 전년동기대비 물량은 28.1% 증가, 금액은 47.0% 증가한 것으로 볼 때 '13년 이후 한국산 라면의 수입 감소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산 라면 일본 수출실적 >

(단위: 톤, US 천불, %)

2011년		2012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1,405	52,783	8,681	42,931	-23.9	-18.7

□ 한국산 수입 증감 사유

○ 한국산 라면은 신라면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시켜 왔으나, '11년 11월 '생면타입' 즉석면의 등장으로 수요가 유출되고 한류붐 인기 저조로 판촉 활동도 축소되고 있어 수입실적은 감소 추세를 보임

□ 시사점

○ 동일본대지진을 격고 내식의 증가와 즉석면의 재평가가 상승효과를 발휘하던 시기에 신기술 제품 등장으로 즉석면 시장은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컵면은 주력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신상품 출시로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고 봄

○ 금년 후반부터는 소맥분 등 원가 상승, 판매가격 표시문제, 상미기간 연장 대응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세율 변동으로 인한 가격표시 문제가 주목되고 있음

<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